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천지방검찰청
전문공보담당자 부장검사 노정옥
전화 032-860-4007

보도자료
2024. 9. 20.(금)

제목 허위영상물(‘딥페이크’)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
검·경 수사실무협의회 개최

-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(9. 20.) 허위영상물(‘딥페이크’)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인천광역시경찰청과 함께 개최하였음
- 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음
 - 인천지검과 인천시경에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립하여, 사건발생 시 수사현황 및 수사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
 - 영리목적 허위영상물 제작사범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, 허위영상물을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로 적극 의율 및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
- 또한,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광범위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, 적극적으로 불법영상물 삭제·차단 지원을 의뢰하고, 경제적·법률적 지원은 물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, 범죄피해자지원 포털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
- 인천지검은 이번 수사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축된 인천 경찰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·지원하여,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I

회의 개요

● 개최 배경

- 최근 접근성이 높아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,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신종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였고, 인천 관내에도 다수의 사건이 수사 중임
-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신속·엄정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한 검·경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

● 일시·장소

- 2024. 9. 20.(금) 11:00~12:00, 인천지방검찰청 9층 중회의실

● 참석자

- 검 찰 :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, 성폭력 전담검사 등 4명
- 경 찰 : 인천광역시경찰청 수사1계장 등 8명

2

회의 내용

●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현황 및 문제의식 공유

- 전국·관내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, 관련 수사 애로사항, 해당 범죄의 특수성 및 엄정 대응의 필요성 등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의식 공유

● 검찰·경찰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수사 착안사항 논의

-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디지털성범죄 전담 검사와 인천시경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여 수사기법 및 영장 발부 현황 등 공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에 임하기로 협의
- 허위영상물을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성착취물로 적극 의율하여 '단순 소지', '유포 목적 없는 단순 제작'에 대하여 강제수사 등을 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사 착안 사항을 공유하고 협의

- 허위영상물로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4 제1항(범죄수익등의추정) 규정을 적용하고, 수사 단계에서부터 몰수·추징 보전 적극 실시하기로 협의

- **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 방안 논의**

- 허위영상물이 유포되었거나,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영상물 삭제·차단 지원 의뢰, 심리치료 등 경제적 지원,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 지원 예정
-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게 ‘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솔루션*’, 차세대 KICS와 함께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 등을 안내하고 범죄피해자센터에 피해자들을 연계하는 등으로 입체적·다각적 지원 예정

※ (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솔루션) 다양한 피해자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제도마다 운영주체가 달라 발생한 피해자들의 불편 및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여러 제도의 혜택을 피해자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

3

향후 계획

- 인천지검은 수사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축된 인천시경과의 핫라인 등 상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신속·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·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■■■